

싸이월드 사용자의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중심으로-

황상민¹, 조희진²
연세대학교 심리학과^{1,2}
{swhang¹, nanchj²}@yonsei.ac.kr

The behavior patterns of Cyworld's users - Focusing on Communication -

Leo Sang-Min Whang¹, Hee Jin Cho²
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1,2}

요약

사이버 공간이 현실 생활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가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인간 의사소통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경험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사용자의 행동 특성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과 영향력, 그리고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싸이월드도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따라서 행동도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싸이월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행동과 활동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 싸이월드에서의 의사소통 패턴과 경험, 활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사전 연구로 진행되었던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정리된 행동문항을 전체 설문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싸이월드에서 보이는 개인의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는 5개 요인(적극성, 몰입, 낯선 사람과의 연결과 정보 추구, 사생활 보호, 단순한 연락 수단, 폐쇄성)이 확인되었고, 이렇게 추출된 행동 요인을 토대로 싸이월드에서 나타나는 3개의 행동 유형(적극적 활용형,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이 구분되었다.

행동 요인의 차이로 표현되는 3개의 행동 유형에 따른 싸이월드에서의 의사소통 패턴과 싸이월드에서의 활동 그리고 싸이월드 경험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행동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싸이월드라는 공간이 사용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가치의 차이로 나타나는 행동 유형에 따라 싸이월드에서 소통하는 대상과 방식이 달라지고 경험의 의미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eyword : 사이버 공간, 싸이월드, 행동 요인, 행동 유형, 의사소통 패턴, 경험과 활동의 차이

서론

윌리엄 김슨이 그의 책 ‘뉴로멘서(1984)’에서 처음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만 해도 사이버 공간은 의식만이 들어갈 수 있는 ‘허구적인 데이터 베이스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으로, 더 나아가 오프라인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실재적 의미를 갖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반즈, 수잔 B, 2002).

이처럼 인터넷이 가장 넓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하고 사이버 공간이 전화나 텔레비전처럼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평범한 것으로 통합되어감에 따라 인터넷과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이 현실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많이 있어왔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인간 의사소통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경험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많이 있어왔다.

Nie 와 Erbring(2000)은 IT 산업의 발전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인터넷이 미국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피험자의 90%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Nie 와 Erbring 은 인터넷 상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해도 그것은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Nie 는 이렇게 말한다 “이메일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메일을 통해서서는 커피나 맥주를 공유할 수 없고 포옹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접촉과는 다르다”. 즉, 이들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결국 사람들을 기존 관계망에서 소외되게 하여 현실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Putnam(2000)

은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을 더욱 혼자 있게 할 수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기존에 먼대면 상황에서 맺었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대체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현실세계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 이루어지고 현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Howard(2001)는 그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메일을 통해서 가족, 친구와 더 자주 의사소통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Kraut 등(1999)과 Pew internet & American life(2000) 연구에서도 인터넷 사용시간의 대부분이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기존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소원했던 오래된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인터넷 등장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이고, 사용자가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즉, 사용자가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기능하고 있고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은 싸이월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가 다르고 결과적으로 행동이 다르듯이, 동일한 싸이월드도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개인의 가치는 심리적인 속성으로서 그것은 표현되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싸이월드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통해 싸이월드에서 나타나는 가치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가치 요인을 토대로 하여 행동 유형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싸이월드에서 행동 유형에 따라 경

험과 의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싸이월드 사용자들은 각기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행동 유형에 따라 미니홈피 운영동기, 경험평가, 의사소통 패턴이 다를 것이다. 셋째, 행동 유형에 따라 싸이월드 내에서의 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폭 넓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월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956명의 응답자중 남자가 304명(31.8%), 여자가 652명(68.2%)를 차지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9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구분해 본 결과 20대(20세~29세)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대(10세~19세)는 40.3%, 30대(30세~39세)는 7.6%, 40대 이상(40세~55세)은 1.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싸이월드의 주된 사용자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이 38.8%를 차지하고 있었고, 직장인이 34.3%, 중고등학생은 25.6%, 초등학생은 1.3%로 나타났다.

절차 및 방법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연구로 실제로 싸이월드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사용자 인터뷰를 했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에는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싸이월드에서 나타나는 행동, 활동 문항과 싸이월드 사용에 관한 문항, 싸이월드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956명의 응답자가 반응한 행동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5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싸이월드의 메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싸이월드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몰입하는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적극성, 몰입>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싸이월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싸이월드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 되어있기에 <낮선 사람과의 연결과 정보 추구>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미니홈피를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과 자신에 관한 정보 누출을 꺼려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기에 <사생활 보호>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싸이월드에서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미니홈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과의 연락수단으로 활용하는 행동 특성을 나타내기에 <단순한 연락 수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싸이월드에서 현실세계에서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하고만 왕래를 하고 낯선 사람들의 접근을 꺼려하는 폐쇄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내기에 <폐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위의 5개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행동 유형을 분류한 결과 3개의 행동 패턴으로 군집화되었다.

연구 결과

1. 행동 유형 구분

1-1 군집 1: 적극적 활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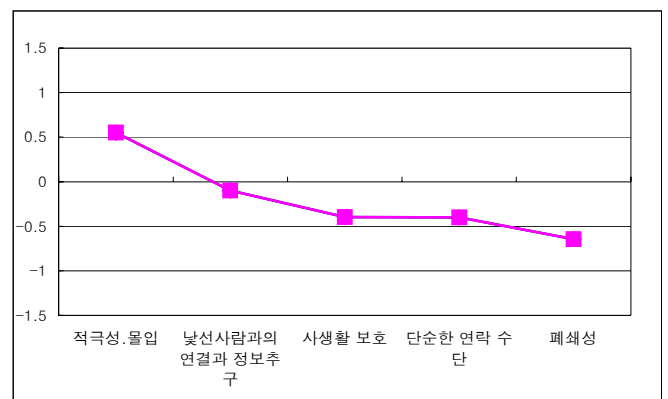


그림 1. 적극적 활용형의 프로파일

전체의 41.7%(399명)에 해당하는 이 유형은 싸

이월드에서 주어지는 메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싸이월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싸이월드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몰입한다. 즉, 거의 매일 친구들의 홈페이지를 순회하며 글을 남기고 도토리를 구매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미고 치장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몇 명이 다녀갔는지 즉, 인기도를 나타내주는 ‘today 히트수’에 많은 신경을 쓰는 유형으로 추정된다.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된다. 폐쇄성 향이 낮아, 낯선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글을 남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촌신청을 해 오면 관심을 갖는 편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33.6%, 여자가 66.4%였으며 평균연령은 21세로 나머지 두 유형과 비교할 때 연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집단의 56.9%, 고등학생 집단의 55.4%가 ‘적극적 활용형’으로 나타났으며, 싸이월드를 매일 사용한다는 집단의 71.7%가 ‘적극적 활용형’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가장 긴 것(91.6 분)으로 나타났다.

1-2 군집 2: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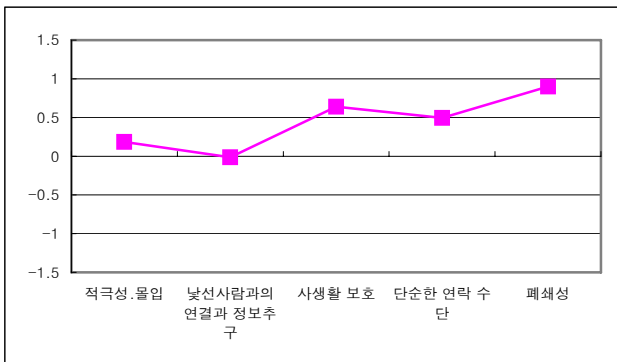


그림 2.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의 프로파일

전체의 33.5%(320 명)에 해당하는 이 유형은 미니홈피를 개인사를 정리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소통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오프라인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만 미니홈피 왕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허락 없이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싫어하며, 일촌도 심리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고 정보 공개 수준을 달리한다. 미니홈피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낮으며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폴더를 운영함으로써 미니홈피를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23.1%, 여자가 76.9%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23 세로 나머지 두 유형과 비교할 때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니홈피를 2년 이상 장기간 운영한 집단의 43%가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미니홈피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니홈피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개인의 일상을 정리하고 생각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3 군집 3: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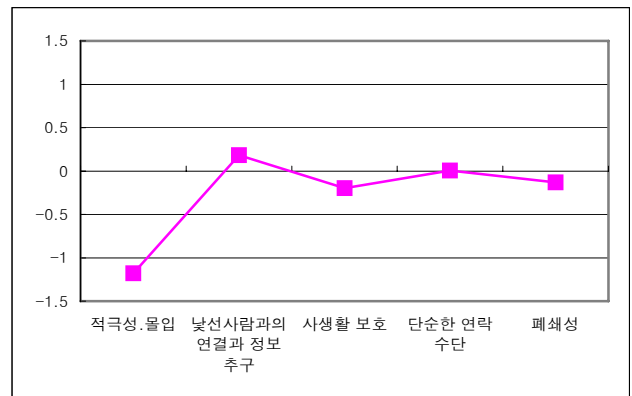


그림 3.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의 프로파일

전체의 24.8%(237 명)에 해당되는 이 유형은 미니홈피를 개인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넓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미니홈피를 연락, 매개수단으로 사용할 뿐 도토리를 구매해서 꾸민다거나 사진을 업데이트하는 등 자신의 미니홈피를 신경써서 꾸미거나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성이 낮다. 이

들은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미니홈피에서 새롭게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40.5%, 여자가 59.5%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22 세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의 50%가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것(70.3 분)으로 나타났다.

2. 미니홈피 운영이유. 경험 평가. 의사소통 패턴

미니홈피 운영이유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0.6%가 ‘주위 친구들이 하나씩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니홈피를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미니홈피를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평가하게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가 ‘현실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경험’ 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싸이월드에서의 소통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체 응답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주로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반응을 통해 나타난 이러한 경향성이 행동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지 알아보았다.

2-1 행동 유형별 미니홈피 운영이유



그림 4. 행동 유형별 미니홈피 운영이유

미니홈피 운영이유가 행동 유형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9.879$, $df=12$, $p<.05$). 세 유형 모두 ‘오프라인 인맥관리를 위해서’ 미니홈피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은 ‘디카 사진의 정리와 보관을 위해서’와 ‘내 생활을 정리하는 용도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미니홈피를 운영한다는 응답은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내 생활을 정리하는 용도로’ 미니홈피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적게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오프라인 인맥 관리와 더불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미니홈피가 행동 유형에 따라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즉,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은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정리. 기록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은 개인생활 정리보다는 익숙한 혹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운영 경험에 대한 평가가 행동 유형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인맥을 넓히게 해 준 경험’ 이었다는 평가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경험’ 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행동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인맥을 넓히게 해 준 경험’ 이었고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얻게 해준 경험’ 이었다는 평가($\chi^2=8.658$, $df=2$ $p<.05$)는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경험’ 이었다는 평가($\chi^2=6.677$, $df=2$ $p<.05$)는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2 행동 유형별 의사소통 패턴

전체 응답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싸이월드에서

의 주된 의사소통 대상은 새로운 사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익숙한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행동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동 유형별 주된 의사소통 대상을 확인해 보았다.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하고만 미니홈피 왕래를 한다”와 “잘 모르는 사람이 일촌 신청을 해 오면 거절한다”는 문항의 평균을 집단간 비교한 결과, 두 문항의 평균값은 행동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_{2,953}=46.101, p<.001, F_{2,953}=266.587, p<.001$), Scheffe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세 유형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문항에서 모두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이 가장 높은 평균값($M=4.04, M=4.17$)을 나타내었다. 즉, 미니홈피에서 오프라인에서 친숙한 사람하고만 의사소통하려는 경향성은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니홈피에서 소통 상대를 기존의 인맥에 국한하지 않고 랜덤 파도타기 등으로 낯선 사람의 홈피에 방문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성향 역시 미니홈피 운영기간이 아닌($\chi^2=8.431, df=9, p>.05$) 가치의 차이로 표현되는 행동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chi^2=40.674, df=6, p<.001$)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요인이 낯선 사람과 연결되는 경험에 영향을 주는지를 회귀분석한 결과 <폐쇄성>(-)과 <낯선 사람과의 연결과 정보 추구 요인>(+)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 유형에 따라 클럽이나 팀플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chi^2=25.193, df=6, p<.001$). 싸이월드에서의 클럽은 보통 현실세계의 친구들이 만든 동호회 형식이거나 조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세계에서 아는 사람하고만 소통하려는 성향이 높은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손쉽게 실제로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인 팀플은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행동 유형에 따라 인간관계 패턴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의 회귀 분석결과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려는 행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인 중에서 <폐쇄성>(-)과 <낯선 사람과의 연결과 정보 추구>(+)요인이 설명을 해 주므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이 새로운 인맥 형성에 적극적인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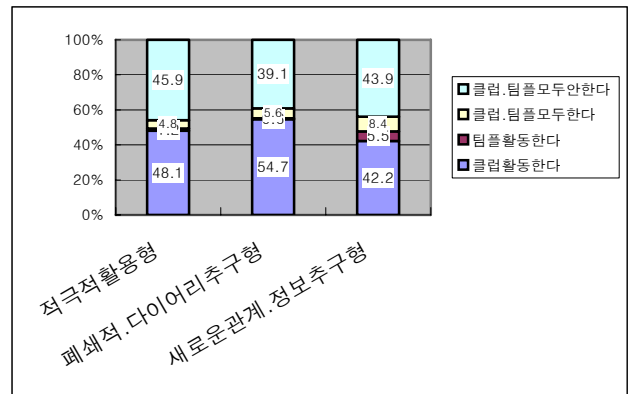


그림 5. 행동 유형별 클럽, 팀플 활동 참여 빈도

3. 행동 유형에 따른 싸이월드 활동에서의 차이

행동 유형에 따라 싸이월드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나의 미니홈피에서 주인인 나를 잘 나타내주는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세 유형 모두 사진첩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응답하였으나, 행동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chi^2=35.806, df=22, p<.05$).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상에 대해 글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인 다이어리와 게시판의 글이 자신을 나타내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적 활용형’은 자신의 홈피에 몇 명의 사람이 다녀갔는지를 알려주는 today 히트수와 일촌평을,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홈피 화면을 통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인 대문사진이나 대문문구, 배경음악이 자신을 잘 나타내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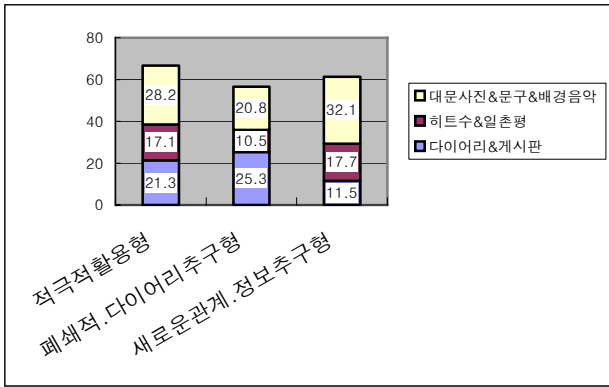


그림 6. 행동 유형별 자신을 나타내주는 서비스

‘미니홈피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기능)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세 유형 모두 사진첩과 방명록을 가장 중요한 메뉴라고 응답했으나,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5.194$, $df=16$, $p<.001$). ‘적극적 활용형’ (사진첩: 48.4%, 방명록: 40.6%)과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 (사진첩: 59.1%, 방명록: 28.4%)과 달리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메시지를 남기고 볼 수 있는 방명록(방명록: 43.5%, 사진첩: 33.8%)을 가장 중요한 메뉴로 응답하였으며,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은 방명록(29.4%)에 비해 개인사를 정리. 보관하는 공간으로서 공개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사진첩(59.1%)을 더 중요한 메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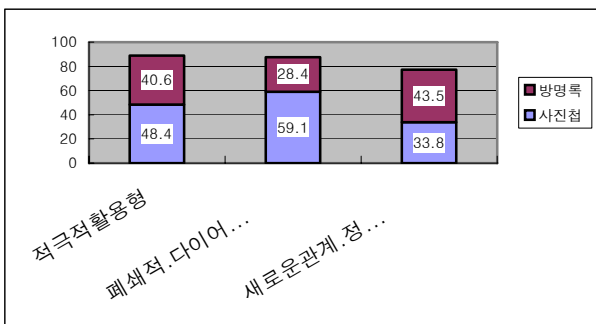


그림 7. 행동 유형별 중요한 메뉴(기능)

‘만약 주위 친구들이 미니홈피 운영을 그만 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행동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chi^2=48.920$, $df=4$, $p<.001$).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나만의 일기장/사진첩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83.1%) 나타났고, 새로 사귀 친구들과 지금처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낮게(8.1%)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적극적 활용형’(26.1%)과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19.4%)은 새로 사귀 친구들과 지금처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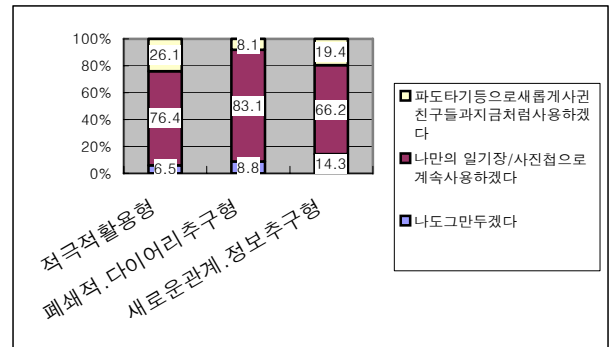


그림 8. 행동 유형별 미니홈피 운영지속 의도

논 의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가 다르고 결과적으로 행동이 다르듯이, 동일한 사이버 공간인 싸이월드도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싸이월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행동과 활동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패턴과 경험, 활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싸이월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싸이월드에서 나타나는 5개의 행동 요인(적극성.몰입, 낯선 사람과의 연결과 정보추구, 사생활 보호, 단순한 연락 수단, 폐쇄성)이 추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집화 한 결과 3개의 행동 유형(적극적 활용형, 폐쇄적.다이어리 추구형, 새로운 관계.정보 추구형)이 구분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싸이월드 사용자들은 미니홈피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 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니홈피가 새로운 인맥을 넓히는 매체가 아니며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를 미니홈피라는 공간으로 옮겨와서

현실과 이어진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니홈피 운영이 현실의 친구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경험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니홈피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현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행동 유형별로 구분해서 다시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패턴과 경험, 활동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하고만 의사소통하려는 성향은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에게서만 뚜렷하게 나타났고,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은 랜덤 파도타기, 톱플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월드 활동에서의 차이도 나타나, ‘적극적 활용형’과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은 미니홈피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를 개인사를 정리. 보관하고 공개 수준을 조절 할 수 있는 사진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은 누구나 글을 남길 수 있는 메시지 창구인 방명록을 가장 중요한 메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활용형’은 인기를 나타내주는 today 히트수와 친구들이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공간이면서 갯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기를 나타내주는 일촌평을,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은 자신의 일상을 정리할 수 있는 다이어리와 게시판의 글을,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은 대문사진이나 문구, 배경음악이 자신을 잘 나타내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패턴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싸이월드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홈피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반응을 해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은 ‘적극적 활용형’은 히트수와 일촌평이 자신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홈피에 다녀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람들과는 사진, 이미지를 통해 소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은 새롭고 신기

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할 집단으로 생각된다.

싸이월드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맥을 넓히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새로운 관계. 정보 추구형’은 홈피 화면에 있는 대문사진이나 문구, 배경음악이 자신을 나타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홈피 내의 각각의 메뉴보다는 홈피의 화면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니홈피를 개인사를 정리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낮기 때문에 사진첩이나 다이어리를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람들과의 소통은 일촌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명록을 통해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새로운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톱플 같은 서비스가 더 다양해지기를 바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미니홈피를 사람들과의 소통 수단이라기 보다는 개인사를 정리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폐쇄적. 다이어리 추구형’은 사진 같은 이미지보다는 다이어리나 게시판에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에 대해 적은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다면 이미지보다는 이러한 글로 소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의 방문을 싫어하고 미니홈피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일촌 그룹핑이나 비밀이야 방명록같이 자신이 공개수준을 조절 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 기능들을 원하고 적극 사용할 집단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싸이월드 공간 속에 각기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 유형들이 존재함을 파악하였고, 행동 유형에 따라 활동과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 문헌

반즈, 수잔 B(2002). 온라인 커넥션. 이동후, 김은미 옮김, 서울:한나래.

장근영(2003). 온라인 게임에서 발현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탐색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하미영(2003).현실 인간 관계에 기반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채지형(2005).싸이월드는 왜 떴을까?. 제우미디어.

황상민(2000). 사이버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김영사.

황상민(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21 세기 북스.

황상민, 허세진, 허미연(2004). 럭셔리 신드롬으로서의 온라인 게임 중독: 럭셔리 디지털 상품의 소비 행동으로서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몰입 현상. HCI 2004 학술발표자료집.

황상민, 김지연, 임정화(2004). 상품으로서의 온라인 게임세계와 역할 놀이자로서의 온라인 게임 소비자의 행동 특성. HCI 2004 학술발표자료집.

Howard, P., L. Rainie & S. Jones(2001). Days and Nights on the Internet: The Impact of a Diffusing Techn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Special Issues).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 Crawford, A(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 49-74.

Nie, N & Erbring, L(2000).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